

**[제목] 왜 주님은 당신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가 (출20:1~3)**  
 [일시] 2016년 10월 16일 주일낮예배설교안  
 [찬송] 찬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, 찬216장 성자의 귀한 몸, 찬373장 고요한 바다로  
 PW: 믿음, MIW: 두지 않는  
 T.S: 믿음이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다.

# 1. 서론

## 1)인사

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, **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**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**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.** 하나님은 **교회 가운데 계시며, 예배중에 임재하시어 복을 주십니다.**

지난 주중에는 **세계 놀라운 일들이** 일어났습니다. **하나**

**회개와 천국복음이 많은 곳에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**

는 사실입니다. 지난주 화요일에는 경북 김천에 사는 어떤

남자 집사님께서 이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. 자가용으로 온

것도 아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먼 걸음을 달려온 것입

니다. 그것은 추도예배와 장례예배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

게 된 다음부터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 보겠다고 하는

데, 어느날 인터넷을 통해서,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

신 것들을 보게 되어서 궁금한 것을 해결하려 왔다는 것입

니다. 또한 사복음서를 헬라어로 직역하신 어느 목사님을

만나뵈기 위해 천안에 갔는데, 어떤 여자 성도님이 저를 따

라 3층으로 올라오신 것입니다. “혹시 정병진목사님, 아니

세요?” 생전 처음 보는 어떤 분이 미장원에 들렀다가 저를

알아보시고는 올라오신 것입니다. **벌써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**

**천국복음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**이었습니다.

그리고 **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는 영혼구원을 위**

**한 새로운 전도법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다**는 점입니다. 지난주

수요일에는 김명환집사님과 노방전도를 나갔는데, 오산에

사는 어떤 남자분을 남광장에 만나서 그분의 **이름과 연락**

**처를** 받아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었고, 어제는

교회에서 이옥자집사님을 만나러온 2동탄에 사시는 어떤

여자분을 만나서 또한 **이름과 핸드폰번호**를 받아서 복음메

시지를 전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.

**할렐루야!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.** 여러분께서

함께 하고 있는 봉사의 손길 하나,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

몸부림치고 있는 것 하나, 매주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

것 하나,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것 하나, 모든

것이 다 하나님께 하나씩 영글어가고 있고 열매를 맺게 될

것입니다.

**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부분적으로 들어왔던 심계명에 관한 말**

**씀 중에서 제1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볼 것입니**

**다.** 과연 우리는 심계명의 제1계명을 지키고 있는지, 그리

고 불순종하고 있다면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, 그

리고 제1계명을 불순종하는 자가 받게 될 결과는 무엇이며,

순종하는 자가 받게 되는 축복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

것입니다.

# 2. 문제제기

## 1)본문요약 및 의문점 제시

오늘 본문 말씀은 **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게 구출해 내신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내용**입니다.

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당신 이외에 다른 신들

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인가요? 당신 앞에 다

른 신들을 전혀 두지 말라고 하시는데, 이는 하나님께서 오

직 당신만을 위한 아주 이기적인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

은 아닌가요? 사람이란 원래 동물과는 달리 여러 가지 꿈

과 이상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인데, 왜 당신에게만 마음에

두라고 말씀하는 것인가요? 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

돈이나 지위나 세상의 낙도 매우 중요한 것들인데, 이런 것

들을 절대 마음을 두어서는 아니 되는 것인가요?

## 2)청중적 접근

오늘날에도 **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네 마음에 두어서는**

**아니 된다고 말한다면**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?

## 3)본문문제배경

오늘 본문 말씀은 **B.C.1445년경 시나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**

**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심계명 중에서 제1계명에**

**해당하는 말씀**입니다.

하나님께서서는 이제 갓 애굽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

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를 통해 **그들이 앞으로 평생에 지켜**

**야 할 윤리와 도덕에 관해** 말씀해 주셨습니다. 먼저는 하나

님에 관한 윤리와 도덕으로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. 그것은

바로 1계명부터 4계명의 말씀입니다. 그리고 이어서 사람

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으로서 계명을 주셨습니다.

그것이 바로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.

그렇다면, 이러한 10가지 계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

명은 무엇일까요? 중요하지 않는 계명들은 하나도 없지만,

앞선 계명이 뒤에 오는 계명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만큼은

확실합니다. **그러므로 심계명 가운데 가장 최고의 계명은 제1계**

**명인 것**입니다.

## 4)문제발생원인

자, 그럼, 제1계명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.

**출20:1-3** **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**  
**되** **그 나는 너를 애굽 땅,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**  
**내 하나님 여호와니라** **3** **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**  
**게 두지 말라**

제1계명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. 이 계명은 당신이 누구

인지를 먼저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백성을 향하여

내리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. 이 제1계명을 히브리어 원문에

따라 직역해보면 약간 다릅니다. 그럼, 원문에서 직접 번역

한 것을 보시겠습니다.

**출20:3[직역] 너는 너를 위하여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**  
**들을 내게 있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.**

그렇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결코 다

른 신들을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.

## 5)문제 심리묘사

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왜 제1계명을 명령하셨는지를 잘 모르면 **하나님은 자기만 위하는 이기적인 신**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.

믿음이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왜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아

니 된다고 말씀하셨는지를 모르면, 우리 인간은 **자기의 마음**

**속에 그 어떤 꿈이나 소망마저도 갖지 말라**는 명령처럼 들립니

다.

믿음이 있어도 제1계명의 의미를 잘 모르면, 하나님께서

는 **하루 24시간동안 당신만을 생각하고 있으**라는 말씀으로 들

립니다.

# 3. 문제해결

## 1)인간의 헌신과 하나님의 주권(방법, 심정)

그럼에도 불구하고 **우리들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이외는**

**그 어떤 것도 마음에 두지 않기를 결정**해야 합니다.

그렇다면,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 앞에 다른

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지, **그 참된 의미를** 살펴보도록

하겠습니다.

## 가. 하나님은 왜 당신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?

**하나님께서서는 왜 당신 앞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아니 된**

**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?** 여기서 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

시길래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

자면 **2가지 이유** 때문입니다. 그것은 **첫째, 신은 오직 창조주이**

**고 구원자**여야 하는데, **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신이라 할지라도**

**그것들은 절대 신이 아니며 결코 신이 될 수 없기** 때문입니다.

**둘째는, 만약 하나님 이외 다른 신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게 된**

**다면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을 것이기** 때문

입니다.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

뜻입니다.

**이 세상에는 사실 하나님을 사칭하는 존재**들이 있습니다. 그

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신인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하고, 무

엇인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. 그러나 그들은 결코 신이 아

닙니다.

**고전8:4-5** **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**  
**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...하나님은 한 분밖에**  
**없는 분이요**

그렇습니다. 이 세상에는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

신과 많은 주님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인 것입니

다.

##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신이 아닌 존재들을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는 것일까요?

그것은 **2가지 이유** 때문입니

다. 첫째,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 분이신데, 신

들이라 사칭하는 놈들도 우리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

다. 둘째,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인데, 이들도 초자연

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

**딤후6:16** 오직 **그분(하나님)에게만** **죽지 아니함이 있고**  
**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**  
**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**

그렇습니다. **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** 사람의 눈으로 볼

수 없습니다.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**전능자**로서 모든 것

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(신3:24,대산29:12).

신3:24 **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능력을 주의**

**중에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자오니 천지간에 어떤**

**신인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**

**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**

대산29:12 **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후에 천재와 능력이**

**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**

**중에 있나이다**

그렇습니다. 천지간에 하나님과 같이 능하신 일을 행할

수 있는 존재는 아무데도 없습니다. **그런데 능력에 있어서**

**하나님 말고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가 또 없습니다.**

하나님께서 보이는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있었습니다.

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보이는 만물을 창

조하셨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물을 보존하거

나 심판하시는 일도 맡기셨습니다. **그것 때문에 하나님은**

**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신 것**입니다.

그들은 누구일까요?

시103:20-21 **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**

**의 말씀의 소리를 들은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**

**송축하라** **21** **그에게 수종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**

**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**

그렇습니다. 그들은 **바로 천사**들입니다. **하나님만이 초자연**

**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천사들도 하나님으로부**

**터 받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** 그래서 홍해와

같은 거대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한 것도 천사들이고, 여러

고와 같은 견고한 성을 무너뜨린 것도 천사들이며, 전염병

으로 하루 아침에 앗수르군대 18만5천명을 송장이 되게 한

것도 천사들입니다. 천사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을 가지

고 있습니다.

그렇지만, 이러한 **천사들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들**

**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.** 이들에게는 **2가지** 있습니다. **하**

**나는, 없는 것을 있게 창조**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. 다

시 말해 창조사역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

하나는, 고통받고 죽어가는 영혼을 질병과 억압과 영원한

사망으로부터 건져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. 즉 그들은 사

망으로 사람들을 붙잡아 둘 수는 있어도 그들에게 영원한

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. 그들도 거대한 흑암 안에 갇혀

있기 때문이요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는

중이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께 심판받아 거대한 흑암의 감옥

에 갇혀 있는 자가 어떻게 다른 이들을 거대한 흑암으로부

터 건져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?

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나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

다. 그런데 **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심계명을 주**

**실 때,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딱 2가지로 말씀**해주

셨습니다. 하나는 “내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니라.(출20:11)”

그리고 또 하나는 “내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 종살이에서

구출해 낸 구원자니라(출20:2)”라고 말씀이나.

**출20:11** **이는 옛세 동안에 나 여호와와 하늘과 땅과 바**  
**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...**

**출20:2 나는 너를 애굽 땅,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**

그러므로,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그 어떤 다른 신도 두지 말라고 한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 이유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신들은 그들이 하나님처럼 보이지도 않고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는 있기는 하지만, 그들은 절대 없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없으며, 그들은 어둠 가운데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.

### 나. 첫 번째 '다른 신'은 무엇인가?

그렇다면,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"다른 신들"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? 예, 그렇습니다. 여기서 다른 신들은 **창조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칭하는 존재들**을 가리킵니다. 이것들은 정확히 **"타락한 천사들"**을 가리킵니다. 사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을 받아 일하도록 창조한 피조물이 천사들입니다.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종들로 만든 존재라는 뜻입니다. 그러므로 그들은 종된 존재이기에 결코 스스로 창조자역을 할 수 없으며, 스스로 사람을 구원해 낼 수도 없습니다. 그런데 **종으로 창조된 존재가 어찌 하나님 흉내를 낸다는 말입니까?**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른채 신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떠받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.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하지만 **타락한 천사들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음 뿐더러,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에 인간들을 교묘히 속이고** 있습니다. 그들은 인간의 눈을 속이면서 신적 존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

이들은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각 민족의 신들이 되었고, 언제부턴가는 조각한 어떤 신상형태의 신이 되었습니다. **모압민족에게는 '모스(왕상11:7)'**라는 신으로, **암몬족에게는 '몰록(왕상11:7)이나 몰렉' 혹은 '발곰(왕상 11:5)**으로, **가나안족속 특히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는 '비알과 아세라(삿 3:7, 2:11~12)'** 혹은 '아스다랏(왕상11:5)'신으로, **블레셋사람들에게는 '다곤(삿16:23)'**이라는 신으로, **앗수르인에게는 '니스록(왕하19:37)'**신으로, **바벨론사람들에게는 '벨'이나 '동방태양(겔8:16)'** 혹은 **'담무스(겔8:14)'**신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어떤 형상을 주조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자 그것은 민족의 교유의 신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.

그런데 **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런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는 단체**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들은 바로 **신사도와 빈아드운동 단체**입니다.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성령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들에게서 능력을 받아 병자를 치유하고, 능력을 행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시늉을 하고 있습니다.

하지만 하나님께서 제1계명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. "그것들은 다 내가 만든 피조물인 천사들에 불과하며 우상들은 장인이 만들어놓은 수공품에 불과하다. 천사들은 내가 종으로 쓰려고 만든 존재이고, 우상은 금은동이나 나무와 돌에 불과하니,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내

마음에 두어서는 절대 아니 된다"고 말씀하신 것입니다.

### 다. 두 번째의 다른 신은 무엇인가?

그런데 **타락한 천사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** 있습니다. 그것은 **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뛰어넘어 가득히 채우고 있는 바로 그것**입니다. 사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 있습니다. 이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인데,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, 사람들은 그곳에 **다른 것들로** 채웁니다. 어떤 사람은 **'돈'으로** 채웁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니다. 하지만 돈을 벌어수십억 가는 호텔 하나 장만했다고 해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. 이 세상에 모든 갑부들이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**호전함을 달래기 위해 또 다른 무엇으로** 채웁니다. 마약에 손을 댑니다. 그래서 마약에 취하다가 어느날 마약에 중독되어 죽거나, 귀신의 음성애 순종하여 자살로 생애를 마감합니다.

그래서 **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공간을 돈으로 채우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돈은 "다른 신"**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

**마6: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**

어떤 사람은 사람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목적을 오로지 **여행**을 위해 돕니다. 세상 모든 지역을 여행하기 위해 돈도 벌니다. 이 사람에게 여행은 바로 "하나님"입니다. 여행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어떤 사람은 어떤 **취미생활을 하는 것이** 인생의 목적입니다. 또 어떤 사람은 **명예스러운 어떤 직책을 얻는 데에** 모든 힘을 다 기울입니다. 그 직책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없이 행하며, 강한 자에게는 굽신거리며 아부하지만 힘이 약하고 없는 자들은 놀러버립니다. 그래서 어떤 직책을 얻고 그 직책으로 군림하는 것입니다.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'명예와 권력'입니다. 또한 어떤 사람은 **쾌락**에, 어떤 사람은 **쇼핑**에, 어떤 사람은 **골프**에, 어떤 사람은 **남 앞에서 보는 일**에, 어떤 사람은 **남의 눈에 띄는 일**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.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. **그것이 그들에게 다른 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.**

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. 어느날 어떤 부자이며 높은 관직을 가진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. 그는 부자이면서 높은 직책을 소유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는 이 땅에서 부자요 이 땅에서 높은 직책을 가졌지만 천국도 갖고 싶어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지를 알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. **"선생님,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?(눅18:18)"** 그러자 주님께서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자 그는 말했습니다. **"어느 계명을 말씀하는 것입니까?"**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**"살인하지 말라(6계명), 간음하지 말라(7계명), 도둑질하지 말라(8계명), 거짓증언하지 말라(9계명),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(5계명)"**고 하신 것이라고

답해주었습니다. 그랬더니 그 청년은 **"그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쳐왔습니다. 그런데 제가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?"**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

**눅18:22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 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**

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? 그 청년이 **근심하며 돌아갔다**고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이유가 **"그 청년이 재물을 많으므로(마19:22)"** 혹은 **"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(눅18:23)"**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**재물에 대한 탐욕은 "다른 하나님"**이었습니다. 이 청년은 사실 10번째 계명,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. 그런데 사도바울은 말했습니다.

**골3: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(탐욕)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**

이 부자청년은 재물에 대한 탐욕이 가득한 사람입니다. 그래서 **오늘날 무엇인가 하나님인 아닌 것에 탐욕을 품은 자는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**입니다. 그러면 자옥입니다.

### 마.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?

하나님 이외의 다른 요소가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면 **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기** 때문입니다. 우리가 죽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? 그것은 **지옥의 형벌에 들어간다**는 말씀입니다.

### 2)청중의 문제와 해결

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요소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리잡고 있습니까? **능력을 주면서 성령을 사칭하고 있는 타락한 천사들**입니까? 아니면 **돈과 명예와 음란**입니까? 만약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제거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뵈지 못할 것입니다.

## 4. 영적 법칙

믿음이란 **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는 것**입니다. 아무리 내게 능력을 안겨준다 해도 그것이 **성령님이 아니라면 거부하는 것**입니다.

믿음이란 **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에 다른 것들을 두지 않는 것**입니다.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이고 멋있게 보여도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. 하나님 이외에 돈과 명예와 음란이라는 것은 다 공허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.

그래서 믿음이란 **오직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시며,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미귀로부터 건져내어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마음을 두는 것**입니다.

## 5. 복과 결단

### 1)복

#### 가. 헌신자가 받는 복

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었던 모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?

**히11:24-26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(파라오)의 궁중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25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**

#### 나. 청중의 더 큰 복

만약 우리도 능력준다고 해도 절대 귀신들을 따라가지 않고, 좋아 보이고 멋있게 보이는 돈과 명예와 음란을 따라가지 않고,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과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면, **첫째,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뵈게 될 것**입니다. 둘째,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.

### 2)결단

**능력준다고 멀쩡 받지 마십시오. 타락한 천사들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돈과 명예와 음란을 추구하지 마십시오. 다 없어질 공허한 것들이기** 때문입니다.

이제는 창조주와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시오. 그분의 명령 즉 계명에 따라 살아가십시오. 우리가 **그분을 위해 산 것만 영원히 남게 될 것**이기 때문입니다.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돈과 명예와 쾌락은 다 죽을 때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들입니다.

#### 가. 결단의 필요성과 방법

우리 마음에 주님만을 채운다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? **주님으로 채운다는 것**입니다. 그것은 곧 **주님의 말씀으로** 채운다는 것입니다. 그것은 곧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.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**우리 곁에 남아 있을 것들을** 추구한다는 것입니다. 그런 것들에는 **주님의 마음을 품은 채 늘 기도하는 일**입니다.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의 역사를 전하는 일입니다. 다른 지체와 약한 자들을 섬기는 일입니다. 그분이 하신 일을 **칭양하는 것**입니다.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분께 **감사하는 것**입니다.

#### 나. 결단의 축복

그러면,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벗어버리는 날 우리의 영혼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**이 세상을 탈출하게 될 것**입니다. 월월 날아서 **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**입니다. 그리고 **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뵈게 될 것**입니다. 그리고 **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될 것**입니다. 그리고 **그 상급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**입니다. 할렐루야!

## 〈하나님의 장자의 명령과 선포〉

### 1) 감사와 회개

주여, 제1계명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

주여,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

주여, 능력을 준다고 해서 덜컥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

주여, 사람에게는 돈과 명예와 음란이 다른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

주여, 다른 신들을 마음 중심에 두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

주여, 그동안 하나님만을 마음 중심에 두지 못했나이다. 용서해주소서.

### 2) 장자권 누림의 결단

주여, 이제는 함부로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겠나이다.

주여, 이제는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나이다.

주여, 이제는 내 마음에 헛된 것으로 채우지 않겠나이다.

주여, 이제는 주님과 주님의 소원만을 내 마음에 두겠나이다.

주여, 이제는 썩어 없어질 것에 내 마음을 두지 않겠나이다.

### 3) 장자권의 누림, 명령과 선포

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능력과 그리고 돈과 명예와 음란으로 유혹하던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.

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, 귀신들과 재물욕과 명예욕과 음란욕은 지금 당장 떠나가라.

내 영혼아 깰지어다. 내 영혼아 깰지어다.

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지어다.

### 4) 오늘의 말씀의 핵심

1.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수 있는 창조주가 아니며, 죄와 사망과 사탄마귀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자가 아니로구나.

2. 타락한 천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,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하나님을 가장하여 사칭하는구나.

3. 우리에게 다른 신은 타락한 천사들이자 또한 돈과 명예와, 음란과 즐기는 것이로구나.

4. 우리 마음에 다른 신들을 두게 되면 훗날 하나님의 얼굴을 뵈 수가 없구나.

5.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에는 오직 하나님만 들어가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구나.

6. 영원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로구나.